

■ 민선 4기 지방의회 공식 출범

민주 독점 구도속 견제·감시 해낼까

광주시의회 11일·전남도의회 7일 개원 상당폭 물갈이돼 풀뿌리 자치 변화 예고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이달 초순 일제히 개원식을 갖고 민선 4기 자치 단체와 함께 공식 출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지방의회는 상당폭의 물갈이가 이뤄져 '풀뿌리 자치'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간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55.6%, 광역의원 의석의 91.4%, 기초의원 64.3%를 거머쥔 민주당이 지방행정과 의정운영을 모두 좌지우지하게 돼 자치단체의 비리나 예산낭비,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힘의 논리로 이끌어갈 경우 '집행부 감싸기'는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원구성을 앞둔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지방의회는 상당폭의 물갈이가 이뤄져 '풀뿌리 자치'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1일 제153회 임시회를 열어 의정단을 선출한 뒤 오후에 개원식을 가질 계획이다. 또 다음날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뒤 25일까지 진행되는 회기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을 방침이다.

광주시 서구의회와 북구의회는 3일 이틀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의정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갖는 등 5대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남구의회는 오는 5일, 동구의회와 광산구의회는 오는 10일 각각 임시회를 열어 의정단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하는 등 5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각각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7일 오전 의정

단을 선출한 뒤 오후 2시 개원식을 갖고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계획이다. 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원내 최다선(5선)인 김종철(여수1) 의원과 재선의 박인환(구례2) 의원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도의회는 운영위가 구성되는 대로 이달 중 첫 번째 임시회 일정을 잡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조직개편안 심의, 업무보고 청취

에 나설 예정이다. 목포시의회는 오는 10일 의정단 선거를 실시한 뒤 11일 개원식을 갖고 다음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른다. 광양시의회와 나주시의회는 오는 3일 의정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여수시의회는 오는 5일 원구성을 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경선후보들 기자회견 2일 오전 서울 연합뉴스 한나라당 당사에서 7·11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日, 순시선 출동 주변서 시위할 듯

■ 정부, 오늘부터 독도해역 해류조사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정부의 해류조사 실시를 하루 앞둔 2일 관련부처에는 '고요함 속에서도 광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초 예정대로 3일부터 14일까지 독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동해 일대에 대한 해류조사를 '주권의 문제'라는 명분 속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공개적인 행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 정부 당국자는 "해류조사를 위한 민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말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팀은 이미 지난주 최소 두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단순하다. 이번 해류조사가 독도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4·25 대일 특별담화'에 따라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강한 대응으로 나온



이에 따라 정부는 해류조사에 착수한 후 일정기간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논란에서 자유로운 해역(기존의 EEZ 기점인 독도와 울릉도 기점의 서쪽)부터 조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한국 조사선박이 양국 이 공히 '자국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 차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4일까지 대상으로 삼은 전 해역을 조사하면 자연스레 논란이 된 해역에 진입하게 되고 이 경우 일본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국제법상 일본은 공선(公船)에 해당하는 한국 해류조사선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순시선이 동원되더라도 '퇴거요청'을 하는 방송을 할 수는 있어도 나포 또는 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주권 문제” 명분 원칙대로 강행 방침 돌발상황 대책 마련... “日 초강수 없을 것”

했다. 해류조사를 실시할 관측선 '해양2000호'도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천500여급인 해양2000호는 울산에서 독도로 이어지는 해역에서 바닷물의 온도, 흐름, 염분농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해류조사를 실무담당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미 2003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독도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를 철회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은 일본측 반발과 이에 따른 여론의 동향이다.

다만 그에 따른 외교적 마찰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독도문제와 관련, '조용한 외교'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할 때부터 강한 대응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급적 마찰의 강도는 줄였으면 하는 희망적인 기대가 다분하다. 미사일 위기 정국과 6자 회담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일간의 외교적 신경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대치가 국제사회에 부각될 경우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도 여파가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국민의 바다 속에서 국가비전 찾겠다”

‘민심대장정’ 전남 장성 찾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

유력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일 “국민의 바다 속에서 국가의 과제와 비전을 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퇴임 직후 '100일 민심대장정'에 돌입, 첫 방문지로 전남을 찾은 손 전 지사는 이날 장성군 남면 학사농장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임기간) 팍으로 경기도를 적셨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팍으로 적신다는 의미로 민심대장정을 시작했다”며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전 날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지난 겨울 폭설 피해 복구활동을 벌였던 장성군 황룡면 일산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농촌 현실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손 전 지사는 “모든 주민들이 환대해줘 감사할 따름”이라며 “작은 도

움이었지만 용기를 얻었다는 농민들의 말씀에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 전 지사는 현 정치권에 대해 “민심을 읽고 모으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며 “지역구도와 패권구도에 기대는 ‘여의도식’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난하고 배가 고프다”며 “우리는 나라와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정치 발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갈길이 바쁘다”고 덧붙였다.

손 전 지사는 1~2일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와 학사농장에서 일손돕기 활동과 좌담회를 가진 뒤 해남으로 이동했으며, 3일에는 참다래 재배현장을 찾은 예정이다. 손 전 지사의 호남 민생탐방 활동은 11일까지 계속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퇴임 이후 본격적인 민생 대장정에 나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일 오후 장성군 황룡면 일평리 방울토마토 농가에서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동영 전 의장 한달째 ‘은둔’ ‘빛나는 대한민국’ 전남본부 창립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동영 전 의장이 한 달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은둔상태다. 정 의장은 지난달 1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정치권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출범한 뒤에는 가까운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조차도 기피하고 있다. 그는 퇴임 직후 강원도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뒤 줄곧 서울 자택에 머물고 있다.

그는 최근 지인의 권유로 '간찰, 선비의 마음을 읽다'는 책을 탐독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부인 민혜경씨와 함께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결혼 25주년 기념 여행도 다녀왔다는 후문이다. 정 전 의장은 이달 중순부터는 유럽 모태학 연구소에 가서 연구도 받을 계획이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강문태 전 내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빛나는 대한민국연대(PARFUS)'는 1일 오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본부 및 시·군·구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강 전 장관을 비롯 유동국 광주·전남본부장, 오근성 목포지부장, 정수생 순천지부장, 백도선 장흥지부장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을 펴고 있는 '빛나는 대한민국연대'는 2007년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강 전 장관의 지지기반으로 지난 2004년 말 '선진화된 매력한국 만들기' 전국대학 순회강연을 계기로 결성됐다. 이날 창립된 전남본부는 서울·충남·대전·광주·제주에 이어 여섯 번째다. 강 전 장관은 “올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까지 연대조직을 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농업직 교시채용

채용과목: 1.농업직, 2.농업직, 3.농업직
 제출서류: 1.신청서 2장, 2.주민등록초본 2부
 보수: 재직중임금 100%

7월 3일 **전남고시학원** 전남고시학원
 www.dreaminstitute.co.kr 1992-222-5105

실내정원

www.j2v.net

전립선 J2V

대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

직원모집 미용그룹 세공에서 유능한 매니저를 모십니다.

미용그룹 세공 1082-223-1088

전립선 J2V

www.j2v.net

대진바이오메디칼 호남지사 ☎1588-3871